

# 중-한 마찰음 음가의 비교

짜오 지에

## 1. 중국어와 한국어의 마찰음 개술

중국어와 한국어는 언어의 가계 분류에 의해서 다른 어계에 속한다(중국어는 한-장어계에 속하고, 한국어는 알타이어계에 속한다). 언어 유형 분류에 의해서 다른 구조에 속한다(중국어는 고립어 유형에 속하고, 한국어는 교착어에 속한다). 이렇기 때문에 양국 언어의 음성은 서로 같은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같지 않다. 중-한 양국 언어의 마찰음의 음가를 대비하면, 특히 중국어와 서로 유사한 음소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한국어 마찰음의 뚜렷한 구별 및 그의 알타이어계 음성 특성을 알아차릴 수 있다.

현대 한어의 마찰음은 모두 6개 있다. 이는 한국어보다 많으며, 게다가 모두 중-마찰음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 발음부위<br>발음방법 |  | 순치음 | 설첨전음 | 설첨후음 | 설면음 | 설근음 |
|--------------|--|-----|------|------|-----|-----|
|              |  | 마찰음 | 무성   | f    | s   | sh  |
| 유성           |  |     |      | r    |     |     |

현대 한국어의 마찰음은 모두 3개 있다. 그들도 모두 중-마찰음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 발음부위<br>발음방법 |   | 전 설 (前 舌) | 목젖음 |
|--------------|---|-----------|-----|
|              |   | 마찰음       | 평음  |
| 경음           | ㅆ |           |     |

\* 본 논문의 약송기 기호는 “”이다.

중국어는 순치 마찰음 [f]이 있다. 한국어는 대다수 알타이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아직 순치 마찰음이 없다. 중국어는 유성-무성 한쌍의 설전후 마찰음만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없다. 남은 마찰음들은 양국 언어들에서 각각 3개 있다. 비교해 보면 각자의 음가 특성을 간파할 수 있다.

발음 부위에서 보자면 중국어의 s[s]는 순설첨전음이지만, 한국어의 s, ㅅ은 그렇게 앞으로 돌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설전음이다. 예를 들면 “사다”[sʰada], “싸다”[sada]<sup>1)</sup>, “이쑤시개”[isuɕigeɕ]<sup>2)</sup> 등. s, ㅅ 뒷면에 전-고 설면 모음 [i]이면, s, ㅅ은 곧 각각 설전음부터 설면음 [ʃ] 또는 [ç]로 변한다. 예를 들면 “시간”[ʃigan] 또는 [çigan], “아저씨”[aʃɕi], “날씨”[nalçi] 등. 이렇게 되어 바로 s, ㅅ 자모(음위)음을 각각 [ç] 또는 [ʃ]의 변체음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중국어의 x[ç] 그 자체는 이미 하나의 성모가 단독으로 음위명세서에 놓으며, 그는 순수한 설면전음이다. 한국어의 [ç], [ʃ] 어떤 경우도 [ç]처럼 그렇게 많은 변체음들을 갖고 있지 않다.

중국어의 h[x]는 설면후(즉 설근) 마찰음으로, 수많은 언어들 설후 마찰음보다 더 앞으로 돈다. 예를 들면 “黄河”의 “河”[xy], “你好”의 “好”[xau] 등. 이것도 성문마찰음 있는 영어를 쓰는 구미인이 정확히 발음하기 어렵다. 한국어도 마침 영어 h[x]와 비슷한 목젓음인 h[x]이 있다. 그의 발음부위는 중국어의 x[h]보다 더 뒤로 돈다. 중-한 양국의 언어 학습자들이 다 주의 해야 하는데, 모국어의 발음부위로 목적어의 근사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밖에 한국어가 중국어와 같은 무성-유성 대립의 설첨후중 마찰음 sh와 r은 없지만, 평음-경음 대립의 전설중 마찰음 s과 ㅅ이 있고, 설면 변체음 [ç]가 있다. 이 두 개의 평-경음 및 그 변체음과 중국어의 성모 s[s], x[ç]는 곧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다른 대립 관계가 있다. 다음 삼 장안에 우리는 주로 중-한 대비할 수 있는 3개 마찰음의 발음 방법에 대하여 따로 따로 토론하고자 한다.

## 2. 중국어의 s[s] 성모와 한국어의 ㅅ[sh] 자음

중국어의 s[s] 성모는 불송기 마찰음의 하나이다. 그리고 중국어의 기타 방언들 안에서 또한 송기 마찰음은 없다. 예를 들면 “三”, 보통말(현대 중국어의 표준어)은 [san]으로 읽고, 광둥말은 [sam]으로 읽으며, 상해말은 [se]로 읽는다. 그러므로 중국사람은 마찰음의 송기 방법에 대해 매우 잘 숙지하지 못하여, 게다가 중국경내의 조선민족이 말하는 조선어는 마찰음의 송기 특징이 또 그다지 분명하지 않아서, 한국어를 배우는 한족 사람은 자주 자기 모국어의 불송기 마찰음으로 목적어의 송기 마찰음을 대체한다. 그들은 비록 이후 청각감 지상에서 한국사람이 말한 송기 마찰음에 매우 민감하고, 또 이러한 음소가 조금 이상함을 발견하지만, 그들 본인이 한국어를 말할 때는 또 부지불식간에 중국어의 불송기 마찰음을 쓰게 되어, 아주 장시간의 말 연습을 거쳐야만 비로소 교정할 수 있다. 필자가 한국인이 말할 때의 이러한 송기마찰음에 대해 조사하였는 바 다음의 단어들을 봐 주기 바란다.

|         |        |
|---------|--------|
| 세탁 洗    | 사람 人   |
| 싫어요 討厭  | 쉽니다 休息 |
| 세계 世界   | 새로운 新的 |
| 식사하다 吃飯 | 손자 孫子  |

1) 이현복 『한국어 표준 발음』 p. 108. 한국교육과학사

2) 이현복 『한국어 표준 발음』의 교실 강의록 중(1996). 이하 국제 음성 표기가 대다수 이현복 교수의 표음과 같다.

|           |       |
|-----------|-------|
| 신청서 申請書   | 삼 三   |
| 설명하세요 請說明 | 석사 碩士 |
| 사업 事業     | 서울 漢城 |
| 사과 蘋果     | 살다 生活 |
| 선선하다 涼爽   | 수박 西果 |
| 소리 聲音     | 스물 二十 |

이들 단어(또는 단어와 단어가 결합된 절이나 구)의 첫음절 자음은 ㅅ[s]음 자신이든지 설면 모음 [i] 앞에 구개 화음 [ç]이든지, 발음할 때는 모두 한 줄기 짧고 급한 강-기류로 신속히 내보내므로, 중국어의 s[s] 또는 x[ç]와 분명한 구별이 있다. 오직 한국인이 말하는 “사십 삼세”(43歲)로 예를 들면, 그의 실제 발음은 [sʰ çip sʰam sʰeɪʒ]이다. 특히 천천히 발음할 때 들으면, 먼 곳에서 들리는, 마치 기차가 역을 막 떠나려고 할 때 기차 머리에서 내는 몇 줄기 증기 소리와 같다. 이러한 송기 마찰음은 한 종류의 강하고도 빠른 송기이며, 한국어 내의 파열음, 파찰음의 강-송기 성질과 같다.<sup>4)</sup> 이러한 강-송기 마찰음도 한국인이 말하는 중국어를 통하여 증명될 수 있다. 필자가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연구할 때, 중문학과 또는 언어학과 학생들이 나에게 중국어로 말한 중국어 구음을 자주 들었다. 예를 들면 “趙先生”의 “先”은 [çʰien]으로 발음하고, “謝謝”는 [çʰieçʰie]로 발음하는 등등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정확하게 하려면 꼭 한국인의 송기 마찰음을 주의하여 채득하여야 한다.

### 3. 중국어의 h(x) 성모와 한국어의 ㅎ[h] 자음

중국어의 h[x]와 한국어의 ㅎ[h]는 발음 부위의 앞- 뒤 구별을 제외하고는 주로 발음 방법에서 차이가 있고 전설음인 점은 같다. 한국어의 ㅎ[h]도 하나의 강-송기 마찰음이지만, 중국어의 h[x]는 도리어 불송기 마찰음이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중문학과와 한국 대학원생이 말하였던 “花放到土壤限容易壞”의 마디 중에서 “花”, “限”의 자음은 다 송기를 발음하게 되며, 그 중의 “壞”는 제일 또렷하게 [hʰuai]를 발음하게 된다. “黃河入海流”의 마디를 읽을 때, “海”의 자음도 송기 마찰음으로 발음하게 되며, 그 중의 “黃河”는 [hʰuang hʰə]로 발음하게 되어서, 중국인은 듣자마자 분명하게 중국어의 [x]와 같지 않음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의 주요 원인은 발음 부위의 앞- 뒤 차이는 아니나, 한국인이 모국어 목젓-마찰음 강-송기의 방법으로 중국어를 하는 연고 때문이다.

필자가 조사하였고, 또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한국어 목젓음 강-송기 마찰음들은 다음과 같다.

|          |           |
|----------|-----------|
| 하숙방 下宿房  | 현지 當地     |
| 해발 海拔    | 화를 내다 發火見 |
| 하어튼 無論如何 | 학교 學敎     |

3) 필자가 한국 고려대학교 중문학과와 공재석(孔在錫)교수를 방문하여 함께 토론함. (1996. 6.)  
 4) 조걸 『중-한 송기음 대비 考』, 이현복 『이현복교수 환갑 논문집』 1996.

|        |          |
|--------|----------|
| 허락 答應  | 형 兄長     |
| 혹시 或許  | 후년 後年    |
| 휴일 休息日 | 힘들어요 吃力啊 |
| 활용 利用  | 흘리다 流    |

이들 단어의 첫음절 목젓 마찰음은 필자가 중국에 있을 때 불송기 목젓 마찰음으로 발음한 것이다. 한국에 온 이후 반복하여 한국인의 말을 듣고, 지금에서야 교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음가 특성에 대해서 감수(感受)가 매우 깊다. 이런 종류의 목젓 마찰음이 강-송기인가 아닌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하나의 유효한 방법이다. 그는 바로 음절 연독 중에 목젓 마찰음이 인접한 음소를 동화한 기능을 관찰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어의 목젓 마찰음 ㅎ은 강-송기 때문에, 앞 뒤 인접한 파열음-마찰음을 동화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 열거한 단어(또는 단어와 단어가 결합된 절이나 구)중의 “ㅎ”과 그의 앞- 뒤 받침의 연독 음성변화를 보자.

|           |                           |
|-----------|---------------------------|
| 복잡해서 因爲複雜 | ㅂ + ㅎ → p <sup>h</sup> ɛ  |
| 생각해봐 想想吧  | ㄱ + ㅎ → k <sup>h</sup> ɛ  |
| 따뜻하다 暖和   | ㅅ + ㅎ → t <sup>h</sup> a  |
| 간했어요 關於   | ㄷ + ㅎ → t <sup>h</sup> ia |
| 많군요 多啊    | ㅎ + ㄱ → k <sup>h</sup> u  |
| 그렇지요 是的   | ㅎ + ㅅ → j <sup>h</sup> i  |

처음 네 단어(또는 단어와 단어가 결합된 절이나 구)는 목젓마찰음 “ㅎ”이 전면의 자음을 동화한 것이다. 동작만 있지만 발음하지 않은 양순음 “ㅂ”은 강-송기의 [p<sup>h</sup>]로 변하고, 동작만 있지만 발음하지 않은 설근음 “ㄱ”은 강-송기의 [k<sup>h</sup>]로 변하고, 동작만 있지만 발음하지 않은 설첨음 “ㅅ”(“ㅅ”은 받침에서 설첨음으로 변한다)과 “ㄷ”은 강-송기의 [t<sup>h</sup>]로 변한다.

다음의 두 예문은 목젓마찰음 “ㅎ”이 후면의 자음을 동화한 것이다. 본래 불송기 또는 약송기의 “ㄱ”이 강-송기의 [k<sup>h</sup>]로 변하고, 본래 불송기 또는 약송기의 “ㅅ”은 강-송기의 [j<sup>h</sup>]로 변한다. 만일 “ㅎ” 자신이 강-송기의 기능이 없다면, “ㅎ”은 “주위의 이웃”이 다 송기 하도록 영향을 줄 수 없다. 더구나 “ㅎ”은 전-후 연접음 송기의 영향에 대하여 우연스럽게 나타난 몇 예문이 아니고, 대체로 “ㅎ”의 전-후 위치에 있는 불송기 자음이 다 송기로 변한다. 특히 “ㅎ” 앞에 있는 파열음, 파찰음이 그렇다. 다시 몇 가지 예를 보자.

|           |                           |
|-----------|---------------------------|
| 행복한 幸福的   | ㄱ + ㅎ → k <sup>h</sup> an |
| 약혼 訂婚     | ㄱ + ㅎ → k <sup>h</sup> on |
| 부탁합니다 拜託  | ㄱ + ㅎ → k <sup>h</sup> a  |
| 기입하다 記入   | ㅂ + ㅎ → p <sup>h</sup> a  |
| 수업하세요 上課吧 | ㅂ + ㅎ → p <sup>h</sup> a  |
| 급한 急的     | ㅂ + ㅎ → p <sup>h</sup> an |
| 못했어요 不能做了 | ㅅ + ㅎ → t <sup>h</sup> ɛ  |

|            |             |
|------------|-------------|
| 못하다 不能幹    | ㅅ + ㅎ → tʰa |
| 본듯하다 好像看見過 | ㅅ + ㅎ → tʰa |

#### 4. 중국어와 s[s], x[ɕ] 성모와 한국어의 “ㅅ”[s][ɕ] 경음

중국어의 마찰음은 불송기이다. 이는 s[s], x[ɕ] 성모와 한국어 경-마찰음 “ㅅ”[s](변체음 [ɕ] 또는 [ʃ], [j]를 포함)과의 유사성을 검토해보면 알 수 있다. 중-한 양국 언어 동음어 대비를 보라.

|                        |
|------------------------|
| 중국어 : Sā[sa] 仨         |
| Sūdá[suda] 蘇打          |
| Wǎngxī[wɑŋ ɕi]         |
| 한국어 : 싸[sa] “包, 裏”의 어간 |
| 쭈다[sudɕa] 熬            |
| 왕씨[wɑŋ ɕi] 王氏          |

양국 언어 각자의 세 예문 중에서 보고 알아낼 수 있다. 한어병음은 성조가 있는 것 이외에 중국어와 한국어의 국제음성표시가 같은 것이다. 한국어의 경-마찰음은 대략 중국어의 불송기 마찰음에 맞먹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류가 성대부터 나와, 인후벽 중에서 조금 긴장했으면, 자연히 기류의 돌진을 줄여서 여유를 둘 수 있으며, 양순에서 숨을 내쉴 때에 이르러 기류가 아주 강할 수는 없다. 이는 발음 원리에서도 잘 설명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음이라는 것은 “ㅅ”이 바로 평음 즉 송기마찰음 “ㅅ”과 대립을 구성한 후에야 이런 종류의 구별 특징을 생기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별”이 한국어에서 음성 관계의 대립 범규를 대표한다. 비록 그것은 중국어에서 성조 관계의 대립 범규와 같지 않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 발음의 사실을 통하여 양국 언어가 어떤 음가상의 동일성을 가지는지 찾아낼 수 있다. 중-한 양국 언어의 학습자는 바로 여기에서 사반공배(事半功倍)하게 표준 발음을 잘 배우는 요령을 찾아낼 수 있다.

#### 5. 한국어 송기 마찰음의 알타이어계 배경

한-장어계의 언어들은 송기 마찰음이 매우 적게 있다. 중국 서남쪽의 어떤 소수민족어내에서는 송기 마찰음의 현상이 있지만, 이들 언어가 한-장어계에 속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도 또한 있다.

적어도 사용 인구가 제일 많고, 분포한 면적이 제일 넓은 중국어는 아직 계통화된 송기 마찰음이 없다. 그러나 한국어 소속의 알타이어계의 송기 마찰음은 어계내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한국어의 송기 마찰음은 어계중의 하나의 구성 부분인 것 같다. 한국어 양측에 위치한 동북 아시아의 다른 두 개의 큰 친족 언어만을 예문으로 하고자 한다.

일본어<sup>5)</sup>: s`ɾlu       하다  
           s`aŋ       사람이름 뒤에 붙이는 존칭  
           s`amuji     춤  
           ɸune       배  
           ɕious`ai   서생의 통칭

만주어<sup>6)</sup>: s`aman     사만  
           s`aq`ta    노인  
           sələ       당신  
           s`oki      채소  
           s`apumpi   보다

일본어 송기 마찰음의 정도는 한국어와 대체로 일치한다. 현대 만주어는 중국 동북쪽에 있기 때문에 장기간 한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마찰음의 송기 정도는 이미 강하지 않지만, “사만”[s`aman]과 같은 만주어 고유의 문화 어휘내에서 [s]음의 송기 정도는 아직도 매우 분명하다. 여기에서 한국어의 송기 마찰음이 알타이어계와의 같은 어원임을 간파할 수 있다.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의 마찰음 음가를 확인하는 것은 한국어 표준 발음의 학습은 물론 한국어 어계에 대한 연구에도 다 상당한 현실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5) 필자가 일본 明治대학교 守屋宏則교수와 일본 北海道대학교 村田裕子부교수를 조사 소득. 1995. 북경대학교

6) 필자가 중국 흑룡강성 泰來현 依布氣촌의 현대 만주어를 조사한 소득. 1985. 10. 흑룡강성 泰來